

투데이 칼럼

전북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제언 2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행작가들을 초청하여 관광지 답사 등을 통해 전북의 유명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등 불철주야 열심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전북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든든하며, 늘 고맙고 감사하다.

이러한 전북의 관광산업에 대한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필자는 나름대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술해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필자는 2012년에 스페인을 여행한 일이 있었다. 12년이나 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스페인 말라가 지역에 위치한 하얀 집 군락지였다. 산비탈까지 이어지는 하얀 집의 군락지를 보며 하얀색을 유지하기가 여간 어려울 것인데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세비아에서는 유명 작가가 살았던 집에 명관을 만들어 이곳에서 어떠한 작품을 썼다고 하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등 관광 자원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는 길가에 커다란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가이드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들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아은 대답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지 아주 오래된 기둥인데, 현재는 가뭄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바르셀로나는 오래된 도시라서 오래된 집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 무너지려고 해도 주인 마음대로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수 없고, 시정의 허가를 받아서 오래된 건물과 다르지 않게 수리를 해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전통을 보존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실망스럽다. 전주 한옥마을만 해도 일률적으로 한옥을 새로 지은 집이 대부분이고, 오래된 것보다는 현대적인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 옛것의 소중함을 간직하지 않고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

2018년에는 프랑스와 스위스를 여행한 일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고흐와 모네 등 유

명이 살아있는 모습과 음악과 미술 등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 감히 제언해 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말이다.

오래전에 SNS 활용법에서 들은 강의 내용이 생각난다.

스위스 인구 80명이 사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 오버무텐에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전세계인에게 명예 시민증을 만들고 자신의 동네 마을 외양간에 실제로 불이고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를 했다고 한다. 그 일로 전 세계에서 스위스 오버무텐에 있는 자기 얼굴에 열광하여 스위스를 여행 와서 오버무텐이라는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시골 마을을 찾아 자신의 사진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소한 것 하나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있지만 큰 감동을 받았었다.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와 친절한 미소 등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산속 높은 곳에 위치한 호텔 옆 카페에서 동네 원주민들이 모두 모여 전통악기를 불며, 음악공연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어 이색적이었

다고 느낀 적이 있다.

우리로 이처럼 전북만의 전통과

전 세계에서는 오늘도 흥성 없는 전쟁을 치르며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로 이러한 대열에서 열심히 노력해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1억명을 돌파하고 전북이 한류 관광을 선도하는 관광의 메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사설

대안 없는 의사들

의료계 갈등이 심각하다. 정치권은 일단 '여야의 정협의 체'라는 중재 기구 구성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원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 야권이 제시한 '대통령 사과' 요구와 관계 부처 장관의 경질, 2025년 증원 백지화 등에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2026년도 증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에 대해 "그간의 불통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반박한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의사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야정부터 논의 테이블에 앉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2025년도 백지화는 현실성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의협은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말 의대 정원

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2026학년도 증원 조정 여지는 열어뒀다. 여당 역시 의료계 주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총 정원을 유예하려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해 의대 입학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에 대입 시행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대입전형 기본사항도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법적 시비가 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협의체에 호응하면서 의대 정원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의료계가 대화 의지도, 대안도 없다는 비난도 거세다.

제17회 서연회전

제17회 서연회전이 최근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기스락 2실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는 이림 김선희 작 '尋梅巡(심매경)', '온나라', 소안당 김연 작 '찬란함이 함께 있는 곳' '송광사 연꽃', 경산 김효정 작 '마음이 고요하니 삶이 고요하여라' '너의 때가 온다', 하루 류지연 작 '바람소리' '전승환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청담 최동명 작 '왕유 선생시' 'Who am I', 여연 정선경 작 '더위의 습격' '전봉준 장군의 순명시', 고은 임선경 작 '전주전번' '소나무', 매당 이명순 작 '동행' '바라는 대로', 눈술 유지연 작 '매화의 빛' '인연', 문산 송완훈 작 '논어 학이(學而) 제1장' '과도같이 일렁이는 인생길', 남강 서천석 작 '한백청연' '강한 경제 전주' 등이다.

무엇이 시대가 요구하는 서예인지 짐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서예가 종교가 되고 생의 반려가 된다.

또 다른 맥 밭에서 묵묵히 모서리 헤어진 버루를 닦고 흐트러진 모란 붓의 매무새를 어루만지고 있을 것이다.

그 존귀와 무궁함 어디에도 비견될 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서예는 시대의 열린 마음과 열린 형식을 통해 전통 서예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서예 장르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20세기의 경계선을 뛰어넘는다.

전통 서예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며 오늘날의 시대 예술로 부활되어야 한다. 서예가는 전통서예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주제적·개성적·창의적이어야 한다.

이야기가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로 거듭나야 한다. 서예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내용과 형식의 차원에서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중국경절 기념 전통춤 추는 티베트 자치구 주민들



9월 29일(현지시각) 중국 쓰촨성 킵초 티베트 자치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기념 축제가 열려 주민들이 다채로운 의상을 입고 전통 귀장춤을 추고 있다.

파괴된 건물서 희생자 수색하는 레바논 구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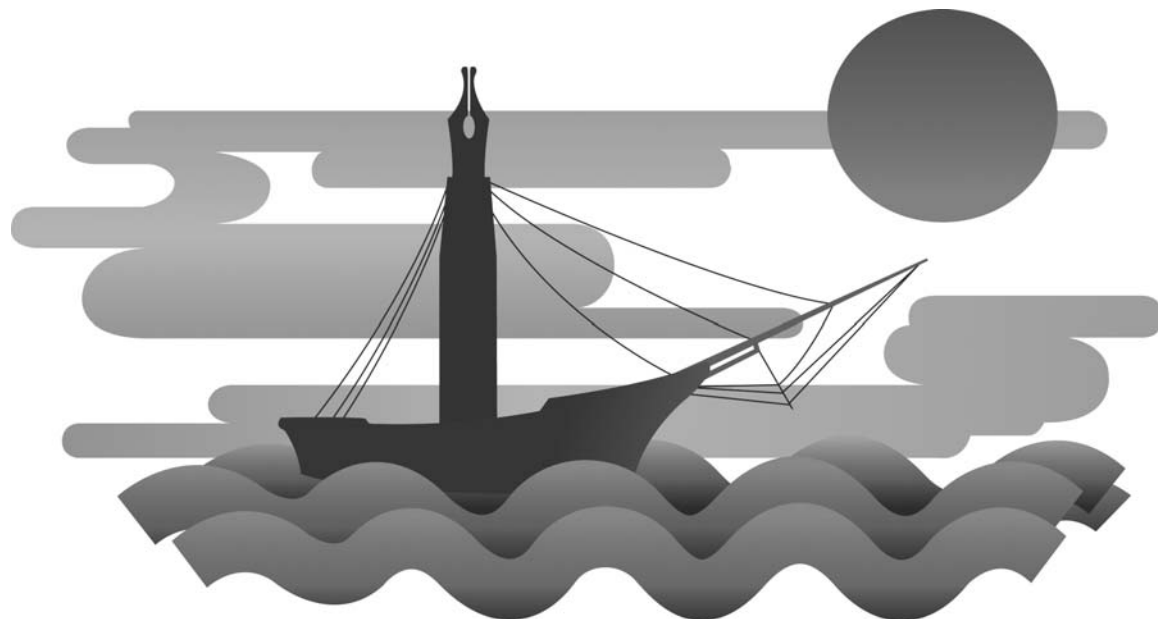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9월 29일(현지시각) 레바논 남부 힝구 도시 시돈 동쪽 아인 엘 델브 마을에서 주민과 구조대원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진해로 수색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